



반산스님의

### 경전읽기

#### 화엄경 ⑬

날씨가 점점 더워오니 오늘은 시원한 산사의 계곡물을 떠올리며 예쁜 풍경을 그려보기로 하자.

“원자중성변법계 철위유암실 개명... 십조구만오천사십팔자 일승원고 대방광불화엄경 악인 육요지 삼세일체불...”

새벽종에서 항상 지송되어 오는 화엄경 제1의 사구계이다. 낭랑한 새벽 종소리에 계승이 실려오니, 수행인들이 사는 산사의 새벽풍경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삼세의 일체 부처님을 일러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이 모든 것이 마음으로 된 줄을 보라(若人欲了知三世一切佛인연 應觀法界性에一切唯心造니라) / 마치 여의주가 온갖 빛을 나타내지만 빛 없는 데서 빛을 내는 것 부처님들도 그러하니라.譬如如意珠 能一

모두 깊고 깊음을 알려, ...불법이 세간법과 다르지 않고, 세간법이 불법과 다르지 않고, 불법과 세간법이 섞이지 아니하며 또 차별도 없음을 이해하니, 법계의 자체 성품이 평등하면 삼세에 두루 들어감인 줄을 분명히 아는 것이니라. (佛법이 不異世間法하고 世間法이 不異佛法하며 佛法世間法이 無有雜亂하고 亦無差別하며 了知法界가 體性平等하야 普入三世하니라)

이어서 계승을 보자. “중생들의 근성이 같지도 않고 욕망과 이해들도 제각기 차별 가지가지 세계를 밝게 아나니 널리 들어 간 이가 이 길 행하네(如衆生根不同과 欲解無量各差別하며 種種諸界皆明達하니 此普入者行斯道로다) / 시방에 한량없는 모든 세계에 태어나는 수효가 그지없지만 한 생 각도 피로한 마음 없으니 즐거워하는 이가 이 길 행하네. (十方

### 만법이 마음으로 된 줄 보라

#### 초발심 자세가 수행자 평생을 좌우

“一切色無色而現色 諸佛亦如是” 이 부분에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60권 화엄에서는 ‘심조제어래(心造諸如來)’라 하고 있다. 마음이 부처님을 탄생시킨다’는 뜻이다. 재미있는 표현이 아니겠는가? 모든 것이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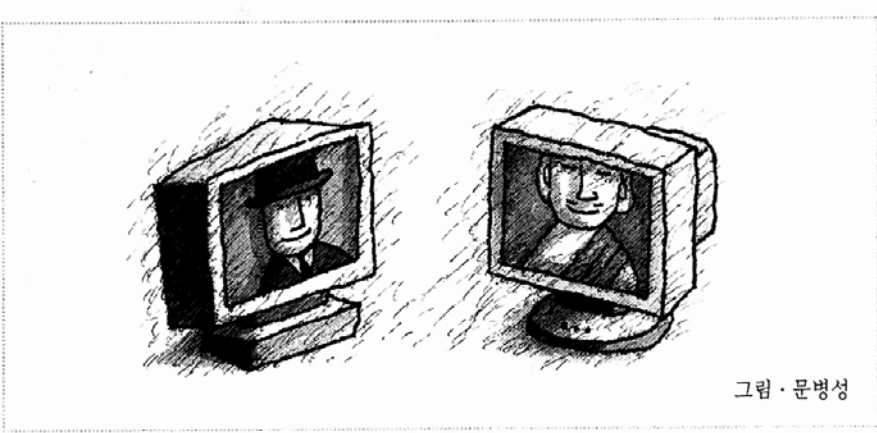
세상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라 어찌면 너무 병법한 듯한 말씀이다. 하지만 이 말은 연기즉공(緣起即空)의 인식론과 연결되어 불교의 유심론적 중도사상을 적실하게 표현하는 금언이 되어왔다. 그리하여 <법구경>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고 하였다.

이제 제4회 설법의 중심인 신행품(修行品) 제21의 계승을 음미할 차례이다. 신행이란 ‘보살의 열 가지 행’을 말하는 것이니, 공덕립 보살이 선사유(善思惟) 삼매에 들어가 여러 부처님이 기피하시는 지혜를 받들고, 삼매에서 일어나 먼저 정행으로 말하였다. “보살은 이와 같이 모든 법이

世界無量刹 悉往受生無有數 未會一念生疲厭 彼歡喜者行斯道” <육조단경> 반야 제2에 말하였다. “불법이 세간에 있어서 세간을 떠나서 깨달을 수 없나니 세간을 떠나 깨달음을 구하려 한다면 마치 토끼의 뽕을 구하려는 것과 같으니라. (佛法在世間 不離世間覺 離世覓菩提 恰如求兔角)” 위의 장항에 말한 정신이 단경에 투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간에 살면서도 불법을 제대로 닦으면 인도의 유마거사나 중국의 방거사처럼 살 수 있지만 출세간에 살면서도 정진하지 않는다면 제바달이나 선성비구처럼 많은 죄업만 짓게 된다고 경계하신 말씀을 명심하자.

지금까지 아마제천품에서부터 ‘일체유심조’로 대변되는 계승들을 음미해 보았다. 가끔 보면 출가의 노정에 함께 출가한 행자도반이 몇 십 년을 지나 만나보면 비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초발심의 마음자세가 수행자의 평생을 좌우하는 까닭도 모두 마음먹기 달린 때문이 아닐까!

■불교신문사 편집위원 연구원



그림·문병성

## ‘정보소외’ 더 큰 문명위기

### 불교와 과학 <32>

현대사회를 흔히 정보사회라고 말한다. 정보사회의 의미가 정확히 어떤 현상을 이르는 것인지 불분명하기 하지만, 우리 삶의 양식과 사회 구조가 컴퓨터와 통신 그리고 뉴미디어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정보사회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 지식의 영역을 확장시켜 놓았으며, 과거 전문가 집단만이 소유했던 지식의 빗장을 대중에게도 열어 놓아 지식의 공유를 가능케 하였다. 그리고 통신과 컴퓨터가 결합함으로써 직접적인 대면 관계가 아닌 간접적인 비대면의 관계를 통한 정보교환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정보는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지식의 수합방식을 뜻할 때가 더 많다. 급격한 산업화가 낳은 인구 과밀화와 통신의 발전으로 인해 지식의 양산이 이루어지면서 그 많은 지식을 개인의 관심에 따라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종합하는가가 문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화에 따른 지식의 의미나 지식의 양상이 아니라, 정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도구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이러한 정보의 특성을 어떤 집단이 가장 크게 자기의 이익으로 실현하고 있는가를 살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정보사회 속에서 정말로 대중들이 가장 많은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식 전문가 집단인가, 정보 마니아들인가, 혹은 국가기관인가?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집단보다 오히려 기업집단에서 정보의 특성을 가장 크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멀티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상품의 소비영역이 넓어짐으로써 상업화 전략이 정보의 특성을 규정하는, 예컨대 정보의 신화가 자리 잡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하여 비대면 광고의 극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식의 지적 재산권을 가장 많이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관련 국제기업들이다. 예를 들어 최근 한글 도메인 확장과 관련하여도 볼 수 있듯이, 국제 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누리고 있는 장기적 이윤창출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과학과 산업화의 소산인 컴퓨터는 영상매체와 통신 수단의 발전 등에 업혀 복합 뉴미디어라는 새로운 상업주의의 칼자루를 만들어 놓았다. 그 칼자루를 누구든지 쥌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이 널리 퍼져 있지만, 실제로 그 칼자루는 산업 자본이 독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현대 산업사회에서 정보의 기능과 의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보 내적인 문제만 다루어서는 안 되며, 정보 외적인 사회·문화·과학·철학·정치 등의 분야에 걸친 총체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 불행히도 우리의 현실은 정보시대라고 멀티미디어나 컴퓨터산업 혹은 영상산업 등의 산업화에 눈이 멀어 정보사회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은 아주 미미한 편이다.

정보사회의 방향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의 건강함이 무엇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나가야 한다. 이 점에서 정보의 공공성이라는 것이 잘못된 이해와 주입된 선입관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의 소유자는 없다고 말한다. 분명 인터넷은 폐쇄된 통신망과 달리 특정한 주관 발행자가 없다. 유행의 재화와 무

형의 인터넷은 소유 개념이 다르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기업자본의 상흔이 이미 깊숙이 들어 있다. 예를 들어 하

#### 정보사회와 불교

#### 산업자본 정보독점 대중혜택은 적어

#### 불교가 정보사회 삶의 방향 제시를

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인 아이비엠과 마이크로소프트사는 80년대까지 불법복제를 눈감고 있다가 90년대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지적 재산권 주장을 강하게 들고 나와 불법복제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도 높게 시행하였다. 10년간이나 불법복제를 눈감아 오면서 세계 시장은 어느덧 그들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뒤덮여진 상태였고, 이제는 그들의 제품을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사실상의 독과점 지배가 구축됐다. 결국 그들의 고도 전략의 결과는 이미 특정기업의 개인 컴퓨터와 프로그램이 전세계를 지배하는 상업화의 극치로 귀결되었다.

초기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인간소외의 문제가 커다란 문명위기로 등장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후기 산업사회의 특징은 기계에 의한 소외가 아닌 정보에 의한 소외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더 큰 문명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제는 정보제국주의의 길들이기를 경계해야 할 때다. 불교는 현대화된 정보사회에 어떤 방식으로든 적절한 대응과 더불어 미래사회에 대한 삶의 방향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결코 전통 신앙종교 혹은 과거의 동양사상이나 철학의 한 구석으로 밀려 나서는 안 된다. 정보에 의한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나침반을 보임으로써, 종교와 과학이 만나는 삶의 현장에 불교의 모습이 다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최충덕/상지대 교수 jchoi@chak.sangji.ac.kr

## 네티즌 신도 10억여명 종교문화 신조류 뜬다

### 지구촌 불교 / 디지털 신자 증가

기술혁명이 종교와 같은 정신적인 것에 대한 인간의 관심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는 추측은 잘못된 생각일 뿐이다.

정보통신 및 산업 뉴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미국의 ‘스탠다드닷컴(Standard.com)’은 5월 30일 바르나 조사 보고서(Barna Research report)를 인용해 “10억 명에 달하는 네티즌들이 순수하게 자신의 신앙 혹은 믿음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스탠다드닷컴에 따르면 종교 관련 사이트를 주로 방문하는 네티즌들은 실생활보다는 가상공간, 즉 온-라인(On-Line) 상의 수행, 토론, 의식 등의 종교 행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과거의 신앙 형태와 비교해 지금의 종교적인 네티즌들의 신앙 형태가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스탠다드닷컴은 바르나 조사 보고서의 표현을 빌려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장 개인적인 종교적 믿음을 키우고 있다”고 이러한 상황을 설명했다.



본사가 신행정보 고승법어, 불교뉴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상에 개설한 부다피아(buddhapi.com) 초기화면.

#### 인터넷 공간서 예불·토론 등 신앙생활

#### 기독교-불교-유대교 順 가상사원 운영

바르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에서는 기독교, 유대교, 불교, 이슬람교 등의 종교계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중 기독교계가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기독교계의 경우 온 오프-라인(On Off-Line) 양쪽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10만여 개를 웃돌 정도다.

이는 자신이나 친구, 친지 등이 살고 있는 곳에 세워진 교회와 가상공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뒤를 불교와 유대교가 잇고 있지만, 기독교와는 달리 온-라인 상에서만 사찰이나 예배당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스탠다드닷컴은 “현실 세계의 사원이 온-라인 상의 예배나 예불의 장소를 개설할 때, 가상공간에만 그것을 개설하는 것과는 달리 종교 지도자가 상주해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는 종교 성향이 짙은 네티즌들은 정기적인 신앙 및 수행 활동을 하게 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탠다드닷컴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이 많은 수의 기독교 관련 사이트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이들 사이트는 방문객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적잖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축복 있는 곳”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크리스티안티티닷컴(Christianity.com)의 최고경영자인 데이비드 디넨포트 씨는 “종교적인 네티즌들이 인터넷의 새로운 소비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들은 사이트에서 종교 생활을 하겠지만, 상업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사이트에서 네티즌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논리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종욱 기자 goboo@buddhapi.com

## 불로화정 (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정가 칠십만원(10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 청개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다 세시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물 품종으로 지금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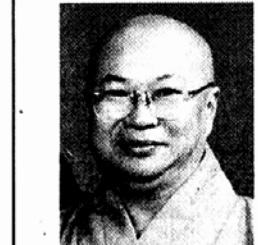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 제조 의 료 총 판 법 인 호성양방·한방병원

이사장 김시연 합장  
☎(053) 628-9145, 655-2227 (011) 808-8880  
호성양방한방병원 (052) 254-2600 (011) 545-5500

###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4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품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 본사 생산제품
- 순간식(2개월 50만원), 순효소성액(2개월 50만원)
-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 구송근포(2개월 150만원), 유행간장(2개월 50만원), 유행원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6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근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품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 「술선식(松仙食)」, 「술효소성액(松酵素精液)」, 「익수영진고」,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53-655-3027) 최형정님 올림